

발표 3

대학 간 통폐합과정에 나타난 문제 - 가천의과학대학교 사례 -

이 성 낙 | 가천의과학대학교 총장

돌이켜보면 1957년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의과대학 두 개의 대학이 통합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대학교 통폐합 역사상 첫 효시가 되는 사례가 아닌가 싶다. 그 이후 1971년에 고려대학교와 우석의과대학이 통합했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몇 개 대학교가 통합한 사례가 있었다.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 중 하나가 '난립 상태'에 이른 대학 문제이다. 단순 숫자상으로도 너무 과다해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된 이 대학 문제는 반드시 대학 간의 통폐합을 통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갖추도록써 국가 발전과 경쟁력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국내 인구 증가율의 급속한 둔화 현상이 여러 분야에서 각종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학에 불어온 직·간접적인 영향이야말로 우리 대학인들이 홀로 감내하기에는 심히 힘들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0년대 대학 사회에 불어 닥친 학사 편입 제도의 '폭넓은 자율화'는 대학 간의 '학생 대이동'으로 이어졌다. 이는 '4년제 대학'에서 다른 '4

년제 대학'으로의 학사 편입 현상만이 아니라, 2년제 전문대학에서 4년제 대학으로 대거 이동·유입 현상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갔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국내외 적지 않은 대학, 특히 지방 대학이 겪은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시대가 요구하는 국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책과는 상반되는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정부가 2004년도에 '대학 간 통폐합에 의한 대학 운영의 극대화와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이른바 대학 구조개혁을 꾀하면서 대학 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겠다'는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동일 학원재단에 속하는 가천의과대학교는 가천길대학(전문)과 통합 대학으로 2005년에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2006년 3월 1일부로 가천의과학대학교(Gachon University of Medicine and Science)로 새롭게 출범했다.

통합된 가천의과학대학교가 새롭게 출범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학 재정의 운영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재단법인 가천학원 이사회가 교육부 주도 정부 시책인 대학 간 통폐합 프로젝트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가 전제되었기 때문이다. 또 이와 함께 양 대학기

관에 몸담고 있는 수많은 구성원들이 대학 당국이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믿고 자기희생적인 동의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본다. 그러나 통합에 따른 물리적인 행정 위주의 절차는 이루어졌지만, 두 기관이 오랜 기간 서로 다르게 지키고 가꾸어 온 교직원의 급여 체계 및 복리후생 관련 사항이나 교수 업적 평가에 따른 상이한 기준과 적용 방법 등 부각되는 많은 문제점들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를 깊이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며, 교육부의 대학 간 통폐합 시행 지침에 따라 가천의과대학교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과 고려 사항들을 짚어 보기로 한다.

첫째, 서로 다른 두 대학 간의 통합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통합 후 해당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본다. 이는 대학 간의 통폐합에 따라 두 대학이 그간 확보해 왔던 공간과 기자재 및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며, 각 기관의 취약점을 보완함으로써 운영의 합리화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통폐합의 핵심 요소가 아닌가 싶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중복 투자를 극소화함으로써 통합 대학의 새로운 활력 요소가 된다고 본다.

그런데 교육부가 제시한 대학 간 통폐합 지침에 따르다 보면, 통폐합을 기획하는 대학은 크고 작은 규정 규약으로 많은 제약을 받게 되어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는 사실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중 한 가지는 통폐합 과정에서 교수는 물론 어떤 인적 구성원도 감원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에 따르면, 엄격한 의

미에서의 대학 간 물리적 통합은 이루어지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화학적 통폐합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 외 통합 과정에서 대학 내 각종 구성원인 교수, 학생 및 교직원들이 전원 모두 동의한다는 ‘만장일치’ 수준의 동의서를 통합 조건 구비 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른바 과민주주의에서 볼 수 있는 부정적인 하나의 예인 것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있을 대학 간 통폐합의 경우 대학 내 각 구성원의 80~90% 이상이 통합 취지에 찬성하는 공감대가 확인되면 해당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 줄 것을 적극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이는 분명 정부가 앞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대학 간 통폐합 프로젝트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둘째, 본 가천의과대학교와 가천길대학 간 통폐합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라 통합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대학 입학 정원을 무려 60% 감축해야 했다. 따라서 본 대학의 경우 1,968명 입학 정원에서 60%가 감소한 787명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어려운 대학 재정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으며, 특히 국내 많은 사립대학들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결코 감내하기 쉬운 이행 조건이 아니라고 본다. 정부는 입학정원 감축 규모를 각 대학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2~3년이란 기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응 집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연성을 보여 주었으면 한다. 또한 통폐합 대학들이 입학 정원 감축으로 직면하는 재정적 손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

셋째, 대학 간 통폐합 프로젝트를 신청하는 대학을 교육부가 심사하는 데 있어 그 기준이

통합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통합 후 대학 교육 여건을 평가함에 교사, 교지, 교수 확보율, 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과 같이 기존의 평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통합에 따른 좀 더 높은 경쟁력 확보라는 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지금까지 국내 대학들의 여건을 감안하면 분명 교사, 교수 확보율 같은 것은 중요한 지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학 교지 확보율 여부를 권장 사항이 아니라 필수 이행 조건으로 명시하는 것은 하드웨어 중심의 구상이 아닌가 싶다. 넓은 교지를 확보하는 재정으로 대학 내 교수들의 연구 수행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

상시킬 수 있는 연구 공간 및 연구 기자재 확보, 또는 학생들의 복지시설을 더욱 확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2005년도 정부가 유도한 대학 간 통폐합 프로젝트 실시 첫해에 가천의과학대학교가 첫 번째 주자로 참여하면서 몸소 겪은 어려움을 위와 같이 요약 서술했으나, 본 대학교가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한 결과 초기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결론적으로 기존 두 개의 대학이 가천의과학대학교로 통합됨에 따라 국내 의료보건의 분야에서 앞으로 특화된 대학교로 더욱 발전·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된다.

대정부 건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대학 간 통폐합이라는 큰 뜻에 따라 대학 내 각종 구성원인 교수, 학생 및 교직원들의 80~90% 이상이 공감대가 확인되면 해당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 줄 것을 적극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 대학 간 통합을 하기 위해 전문대학 입학 정원을 무려 60% 감축하였는데, 입학생 정원 감축 규모를 각 대학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2~3년이란 기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통폐합 대학들이 입학 정원 감축으로 직면하는 재정적 손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요망된다.
- 대학 간 통폐합 심사 기준
통합 후 대학 교육 여건을 평가함에 교사, 교지, 교수 확보율, 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과 같이 기존의 평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함. 교사, 교수 확보율은 중요한 지침 기준임.
대학 교지 확보율이 필요한 이행 조건이기는 하나, 넓은 교지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교수 연구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 공간 및 연구 기자재 확보, 또는 학생들의 복지시설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